

이슈 리포트

20

2003년 11월 마지막주(11/17 ~ 22)

◎ 주요내용

- 세상돋보기:	성난 농심
- 노동자 세상:	외국인 노동자
- 통신정책:	BcN?
- 정자동 6층에서:	카더라 방송...
- 만화방	시사 만화



KT노동조합 정책기획실



”

(農心)”

농민은 우리 노동자의 우군이자 우리의 어제이다. 농민들이 서울에 집결하여 전경과 대치하는 장면이 TV에 비추어지는데, 그들의 삶의 현실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말지(誌)에 게재된 [현장의 소리] 일부를 편집하여 실는다.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 둔치 농민대회장에는 7만여명의 농민들이 운집했다.

전국 각지에서 2천여대의 버스를 타고 상경한 농민들에게 '한.칠레FTA'와 'WTO농산물 수입개방'은 임박한 현실적 불안 요소 그 자체였다. 오랜만에 동네 사람들 모여서 서울 구경왔다고 좋아하며, 집회장 여기저기서 너댓명씩 모여 앉아 소주잔을 돌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어르신'들의 순박한 표정 속에는 말로 못하는 불안감이 숨어있었다.

“쌀이 힘들어 사과 심었더니 FTA로 사과밭도 갈아엎을 판”

경북 김천에서 올라온 오정명(57)씨. 8년째 사과 과수원을 하고 있는 오씨는 “한.칠레 FTA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심각하면서 단호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오씨는 벼농사를 짓다가 지난 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쌀’로는 먹기 힘들겠다고 생각해 비교적 빨리 '전환'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오씨는 과수원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전답을 다 처분하고 살고 있는 집을 저당잡아 별 좋은 밭을 사서 사과나무를 심었다. 농약살포기, 콤팩트 등 농기구를 사고 종목 변경하는 데만 빚을 5천만원을 졌다고 한다. 게다가 사과는 4~5년이 지나야 수확이 가능한 농사로, 이제야 수확을 시작했는데 다 갈아엎을 판이라고 앞날을 걱정했다.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또 빚을 주겠다니”

오씨는 이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오씨는 “사과를 시작한 게 소득도 높고 정부가 나서서 농업 품목 다변화가 뭔가라며 지원해준다고 해서 했다”라며 “처음에는 연리 5%가 싼 이자라 생각해 큰 맘 먹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빚이 8천만원이 됐다. 그런데 지금 칠레에 과일 개방하고 나더러 또 빚먹고 살라고 그러다”라고 하소연했다.

오씨는 “그나마 사과 딸 때까지 먹고 살기위해 남겨둔 고추밭으로 지금까지 근근이 버텨 왔는데, 올해 냉해와 태풍 ‘매미’로 (평소의) 반 밖에 수확을 못했다”라며 “또 빚을 지게 생겼다”라고 말했다.

농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농민대회 참가자 평균 연령이 60세”라고 말할 정도로 농촌사회의 이농 현상에 따른 농업붕괴현상도 예상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30년 이내에 농촌사회가 자연스럽게 붕괴될 지도 모를 일이다. 오씨는 “자신이 마을에서 막내 축에 낀다”고 말했다.

“자식놈 농사 물려주고 싶은 부모 누가 있겠나?”

마을 '청년'회장은 51세의 권정철씨다. 권씨는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앞날이 깜깜한 농사를 누가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나”고 흥분했다. 권씨는 주로 포도를 하는데, “올해 일조량이 부족해 완전히 망했다”라며 “지금까지 직접 판매했는데, 올해는 화가 나 밭에도 가기 싫어 그냥 헐값에 밭떼기로 넘겼다”라고 말했다.

권씨는 또 “어떤 사람들은 칠레포도가 맛이 없다’라고 하는데, 한국포도 농가 다 망해서 포도 농사 안지으면 한국포도는 칠레에나 심어야 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여의도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만난 평창에서 온 임숙자(52)씨. 임씨는 “요즘 얘기 들어보니 중국에다 한국 감자랑 고추, 배추 같은 종자 갖다 심어 다시 한국으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라고 걱정하며, 그러나 “솔직히 배운 짓이라곤 농사밖에 없는데 그래도 계속해야지 어쩔니까”라고 체념했다.

농민들의 마음에는 ‘농자지천하지대본(農者之天下之大本)’의 마음이 굳게 박혀 있었다. 전남 영암에서 올라온 김성철(62)씨는 “핸드폰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밥 안 먹고는 못사는 것이다”라며 “농군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이겠냐”고 한탄했다.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연 농민 7만여명 중 일부는 마포대교를 건너 공덕동으로 향하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국회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이 여의도 마천루 빌딩 숲을 가로질러 여의도 공원을 지나 국회방향으로 진입하려던 순간 이미 수십대의 전경버스가 범퍼와 범퍼를 맞대는 방식으로 2중 3중 빈틈없이 가두행진을 가로막았다.

이에 3백여명의 흥분한 농민들이 전경버스를 흔들고 경찰버스 위의 전경들에게 깃발을 휘두르는 등 가두행진을 계속하려 했다. 그러나 버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전경버스를 흔들는 농민들의 흥분은 더욱더 높아져갔다. 일부 농민들은 어디선가 구해온

삽으로 전경버스의 유리창을 깨고,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불을 지르는 등 시위는 격렬해졌다. 한 해 피땀흘려 농사지은 사과와 귤을 던지기도 했다.

또한 농민들이 버스에 불을 지르고 줄을 매달아 전복시키려는 등 시위가 점점 더 과격해지자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전의경 병력을 투입해 여의도 공원 안쪽으로 농민들을 순식간에 몰아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명의 농민들이 쓰러져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과격한 행동을 하는 농민들은 2백여명 안팎일 뿐 어둠이 내리자 대부분의 농민들은 공원 낮은 울타리 안쪽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싸움 구경을 하거나 집에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절해서 올라온 관광버스 기사가 “어서 내려가자”라며 마을 주민들을 찾고 다니기도 했다. 이들은 절대 '조직된' 폭력분자들이 아니었다.

“니들은 쌀 안 먹고 사냐?”

물대포 세례에 흠뻑 젖은 농민들은 허탈하고 분한 마음에 전의경들에게 “니들은 쌀 안 먹고 사냐? 우리 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며 하소연도 하고, “니들은 애미 애비도 없냐?”라며 항의도 하고, 어떤 농민들은 “아들 같은 전경들 나무라지 맙시다”라고 말리기도 했다.

국회 앞을 철통같이 막고 있는 전경버스와 경찰들은 농민들에게 또 하나의 ‘넘지 못할’ 좌절의 표상이었고, 물대포에 흠뻑 젖어 순식간에 흩어져 버린 마을 사람들은 무력감의 증거였다.

게다가 시위를 하는 동안 여의도 금융가에서 쏟아져 나와 꽉 막힌 여의도 도로사정에 쪼그리는 말끔한 차림의 어느 세련된 여성 직장인이 내 뺨은 “또 데모야”라는 말 한마디가 옆에 타고 올라온 관광버스를 못 찾아 헤매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들릴까 매우 초조했다.

노동자 세상

☞ 외국인들이 출국과 단속을 앞두고 목숨을 끊고 있다. 길거리에서 쉽게 마주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볼 때 쉽게 지나쳤는데, 지난 노동자대회때 집회 현장에서 보고, 또 외국인들의 죽음을 접하면서 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남의 이야기같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노동자의 처지...
염무웅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을 게재하여 이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손배가압류 조치의 잔인성과 비정규직 차별의 부당성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소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혹독한 수난을 당하고 있다. 지난 8월17일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면서 이 법에 의해 22만7천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크게 선심을 베푸는 듯이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합법화 신청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을 뿐더러 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한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거칠고 힘든 일자리만 외국인에게 허용하되, 그들이 이 땅에 영구히 정착할 꿈을 꾸지 못하도록 일정기간 부러먹고 내쫓겠다는 것이 그 법의 진정한 의도이다. 그 결과 지난 3월말 현재 3년 이상 체류자와 그후 새로 생긴 불법체류자 등 15만명 정도는 자진 출국하거나 잠복하는 길을 택하였고, 심지어 몇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였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또 그들의 존재가 우리 경제에 어떤 긍정적 역할 내지 부정적 효과를 발휘하는지 제대로 거론할 만한 식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 동포도 한때 해외이주 -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생물은 먹이가 있는 곳으로 몸을 움직이게 마련이다. 따라서 돈벌이가 되는 곳으로 사람이 모여드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런 점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농촌붕괴와 중앙집중-도시과밀화는 국가목표로서의 산업화정책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 말부터 우리 동포들은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로, 일본과 아메리카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현재 6백만명에 이르는 해외 한민족의 숫자는 유태인을 제외하면 인구 비율상 세계 제일이라고 한다. 최근 15년간 주로 동남아인들 40여만명이 한국으로 노동이주를 한 것은 우리 민족의 해외이주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외국인노동자를 억압하고 추방할 권리가 있는가.

그런데 험한 일에 종사하던 숙련된 외국인노동자들이 출국·잠복함으로써 중소기업 사업장은 지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수십만의 청년실업자들이 거리를 배회하며 범죄와 타락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 대체 왜 이런 모순된 현상이 발생하는가.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이 천시되고 차별당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빈곤의 세습이 제도화되어 가고 그것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교육이라고 인식되는 현실에서 대졸실업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내 생각에 근본적인 문제는 재화의 생산과 분배가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고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데에 있는 것 같다. 한 나라 안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렇다. 가령 미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부유국이고 자원의 소비국가로서 외국인노동자에게 최고의 선망 대상이지만, 동시에 내부적 소득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일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평등 자체가 자본주의체제의 작동을 위한 불가결한 동력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노동 국제이동 보장돼야-

지금 초국적자본과 강대국들 즉 세계의 지배집단들은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국제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세계화'라는 기만적 이름으로 불리는 이 수탈체제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와 취업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것은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이후 끊임없이 계속된 이주의 관행을 거역하는 것이며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을 부인하는 것이다. 따뜻한 곳을 찾아, 사냥감이 많은 곳을 찾아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가로질렀던 기억은 인간의 두뇌에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다.



(BcN) ?

정통부에서는 지난 17일 광대역통합망(BcN) 사업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초고속인터넷가입자가 줄고 있으며, 유선가입자도 6개월째 감소추세라고 하는데, KT로서는 신사업에 대한 갈증이 어느때보다 높은 시기이다. 향후 통신산업의 중요한 기준이 될 광대역통합망(BcN)을 알아보기로 하자. 다음의 내용은 inews-24 백제현기자의 글을 편집한 것이다.

오는 2010년이면 일반 가정에서도 고품질의 방송과 통신, 인터넷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품질과 보안까지 보장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BcN이란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유선·무선·인터넷망을 상호 연결시켜 방송과 통신 및 인터넷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에 따라 현재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인터넷망에도 최소한의 품질과 보안이 보장돼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가입자가 50~100Mbps 속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통신·방송·인터넷 서비스를 끊임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당초 2005년까지를 목표로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번 BcN 구축 계획으로 전환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

◇유선가입자망 광대역화

우선 유선가입자망 광대역화를 위해 민간 주도로 50Mbps급 이상의 VDSL 모뎀 및

DSLAM 등을 개발하고, 2005년까지 KT로 하여금 전국 모든 지역에 초고속망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005년 이후에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시켜 전국민이 누구나 저렴하게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무선가입자망 광대역화

2010년까지 1천만 가입자에게 고정, 보행 및 고속이동환경에서도 최대 50~100Mbps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500Mbps~1Gbps급 초고속 무선랜 기술을 개발하고 주파수를 분배키로 했다. 또 2005년 이후에는 30~50Mbps급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도입하고, 고속이동시 10Mbps급 IMT-2000 및 100Mbps급 4G(세대)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성 IMT-2000의 궤도 및 주파수를 확보키로 했다.

◇방송망 고도화

통신·방송망 연동을 통한 T-커머스, T-정부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키로 했다. 2005년 지상파 디지털TV 전국망을 완성하고 양방향 데이터방송 등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이다.

또 세계 최초로 DMB 서비스 제공 등 통신방송 융합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구내통신 고도화

이미 공동주택의 덕내까지 광케이블로 구내망을 구축할 경우 '특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저렴하고 효율적인 광케이블망 구축을 위한 공법 교육 및 시공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홈네트워크 보급 촉진

유·무선 IEEE1394, UWB, PLC 등 홈네트워킹 기술과 OSGi, UPnP 등 미들웨어 기술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통합 미들웨어, 응용 API, PLC 등의 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홈네트워크용 정보가전기기 인증마크 부여제도를 시행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 보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U-센터 네트워크 구축

UWB, RFID용 적정 주파수 발굴 및 조기 분배를 추진하고 저전력 무선기기용 주파수는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토록 개방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100Mbps급 UWB 기술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민·관 역할분담으로 900MHz 대역의 RFID기술, 스마트센서, 센서 에이전트 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기대효과

BcN이 구축되면 통신·방송 시장규모가 대폭 확대돼, 생산 수출 고용면에서 2004년도에 각각 56조원, 27억달러, 29만명 가량에서 2010년에는 각각 95조원, 135억달러, 37만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생활면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정보이용 환경이 조성되고, 지역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E-정부, M-정부, T-정부의 핵심기반이 됨에 따라 투명한 인허가 등 민원행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 가상사무실을 실현을 통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해방되는 한편 전자물류 등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BcN 관련 기술의 선점 및 표준화 주도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IT 신성장동력 기술기반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자동 6층에서

“ ”

최근 군경력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온다.

군경력 소송을 시작한지가 벌써 3년차를 맞이하고, 1심은 원고측(노동조합측) 승소, 2심은 피고측(회사측) 승소, 지금은 3심인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왜 지금에 와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소송 취하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으면 한결같이 개인적 사유라고 한다.

도대체 몇 년동안 없었던 개인적 사유가 갑자기 몰려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몇 차례의 질문 끝에 겨우 답을 들을 수 있었다. 답은 ‘승진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을 한 것이 승진누락 사유가 된다는 소문이 있기에 소송을 취하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사실여부는 확인이되지 않고 ‘카더라’라는 소문이다.

군경력 소송이 인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인사는 회사의 고유권한이며 공개되지 않기에 그 내막을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만약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을 불충으로 보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카더라’방송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KT의 앞날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군경력 소송은 2000년 7월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 '82, '83년도 공무원 신분에서 공사 전환자 중 '73.01.01부터 공사 전환 시까지 군입대 휴직기간 중 1/2을 감축하고 지급한 것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위반되므로 퇴직금 차액지급 청구를 위한 소송을 한 것이다.

이는 당당하게 군복무를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는 것이고, 이의 해결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법에 요청한 것이다.

이는 회사에 대한 근거없는 불만도 저항도 아닌 극히 정당한 사고이며 합리적 행위이다. 이는 자신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며, 잘못을 시정하고자 하는 정의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건강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KT의 권리, KT의 발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했다.

정말로 ‘카더라 방송’대로 군경력 소송을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KT의 앞날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가 KT의 발전을 위해 그 사람의 객관적인 능력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충성심과 그 사람의 힘을 찾아내는 평가라면 향후 KT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때문이다.

노동조합에서 인사관련 부서에 사실 확인을 하지만 절대 아니라고 한다.

도대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

사실이나 근거를 찾기가 막막하고, 조합원들은 이런 저런 소문 때문에 불안해 하고...

혹자는 이런 말을 한다.

‘과거 전례에 비추어 보면 소문대로 이루어진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물론 소문대로 된 것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소문대로 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잘 알지 않은가? 되돌아 보면 고용과 관련된 설(說)들이 맞았던 것 같은 이유는 대란설이 매월 되풀이 되었기 때문이다.

KT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이다.

조합원들이 심지어 노동조합도 믿지 않는경우도 있다.

그런 배경과 풍토 속에서 “카더라 방송”이 만들어 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가장 숙제일 수 있고 또한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다.

방법은 없다. 이런 문제는 오랜 시간을 통해 조금씩 쌓아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만큼 어찌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신뢰를 얻기위한 노력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 최선을 다해, 노동조합의 원칙을 지키며, 투명한 노동조합을 만들기위해 한발 한발 나간다면 분명 신뢰하는 KT노동조합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그리고 더불어 조합원 당사자도 “카더라 방송”에 불안해 하기보다는 노동조합 체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합해진다면 그 신뢰의 시간은 훨씬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